

영암 F1경주장서 '세계자동차박람회' 추진

모터쇼·레이싱대회·아티스트 공연 등 총망라 독일 메세 프랑크푸르트코리아 개최 여부 관심

영암 F1(포클러원)경주장에서 세계자동차박람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람회는 세계적 규모의 모터쇼와 레이싱대회, 자동차 관련 애프터마켓 아울렛, 해외 아티스트 공연 등이 총망라된다.

14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전시전문업체 등에 따르면 세계적인 전시회사인 독일 메세 프랑크푸르트코리아는 모터쇼를 비롯한 다양한 콘셉트가 포함된 이벤트 개최를 위해 영암 F1경주장 측과 협의

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지난 10월 16일 실무진을 F1경주장 현장에 파견해 사전 조사를 했다. 2차로 이달 말께 메세 프랑크푸르트코리아 지사장이 경주장을 방문, 세계자동차박람회나 대형 국제모터쇼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뒤 본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F1경주장에서 시범적으

로 '모터 페스티벌 전시회'를 개최해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락페스티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들이 추진하려면 콘셉트와 일치한다고 판단, F1경주장 측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자동차박람회 개최가 성사되면 F1경주장 측은 30만평 규모의 전시장과 서킷을 제공하고 메세 프랑크푸르트측은 전세계에 28개의 지사와 50개의 에이전트를 통해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와 부품회사 등이 전시를 한다는 구상이다.

박람회에서는 차량의 전시와 판매, 주행체험, 부품기술의 정보교환, 아티스트 공연 등이 다양하게 이뤄진다.

전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메세 프랑크푸르트의 전시는 뛰어난 국제성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최고의 브랜드 전시회"라며 "섬유, 소비재, 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년에 120여 개에 이르는 전시를 성공적으로 주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성사될 경우 전남 서부권의 대형 박람회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삼포지구 2단계 개발사업 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모터락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2019년이나 2020년 박람회 개최 가능성도 높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4차 산업혁명 특강 5600여명 몰려 성료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강좌가 지난 10월 이강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매회 평균 450여 명, 모두 5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특강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업인, 학생, 시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미래 변화상을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산업의 방향과 일자리 창출 전략을 모색했다.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인공지능, 지능로봇, 블록체인, 자율주행자동차 등 각계각층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전문성과 규모면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유현석기자chadol@



아시아문화포럼 개막 아시아 국가 간 문화적 연대를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창조적 아시아 문화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2017 아시아문화포럼'이 14일 개막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4차 산업혁명·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치매예방 등 자문

각계 전문가 160명 전남도정 12개 분야 정책토론

'4차 산업혁명시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융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전남도 치매 예방 관리 대책' 등 전남도의 정책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160여 명이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14일 도청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종철)를 열어 '4차 산업혁명시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 등 도정 현안을 자문했다.

160명의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도정 설명을 듣고 정책을 제안하는 전체 회의와 분야별 현안을 그룹별로

집중 토론하고 자문하는 분과별 회의로 진행됐다.

전체회의에서는 농업분과 위원장인 이기웅 순천대 교수가 농도인 전남도가 미래 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농업의 선진화를 제안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교수는 정책제안을 통해 "미래농업은 데이터농업이며, 이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을 의미한다"며 "ICT 기반 농축산 융복합 빅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도내 간척지에 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

성·활성화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과위원회별 회의에서는 ▲술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전남 e-모빌리티 산업 육성 방안 ▲융·복합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방안 ▲청년농업인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전남도 치매 예방 관리 대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 ▲지자체·교육청 연계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환경감시용 센서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방안 ▲물 관리 일원화 방안 ▲에너지밸리 조성현황 및 향후 과제 등 실·국별 정책현안을 토론했다.

박종철 정책자문위원장은 "인구 감소 및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많은 부문에서 전국의 정책보다 앞선 정책이 필요하고,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생활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청장·단기 발전계획 수립과 주요 현안 등의 자문을 위해 투자 유치, 전략산업, 관광문화, 농업, 해양수산, 보건복지, 지역개발 등 12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계각층 25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정책자문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 회의와 99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217건의 정책제안과 자문을 했으며, 이 중 162건은 도정에 반영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감사처분 요구 조치 미이행 고소 당해"

김영남 광주시의원 주장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시감사위원회의 감사처분 요구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전일빌딩 임차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민주·서구 3·사진)은 14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일빌딩 관련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꿴어져 행정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최근에는 광주도시공사가 소송사기 고소 당하는 등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전일빌딩을 철거하고 민주평화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해 소송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건의 허위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사기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임차인들은 도시공사가 명도소송 진행 당시 전일빌딩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D등급' (철거고려 대상)이라는 허위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아시아문화재단의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이 취소됐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광주시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처리 부적절'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임차인들에게는 어떠한 사과나 보상·합의 등을 하지 않아 고발당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전국 평균 웃돌아"

유정심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유정심(국민·남구2·사진) 의원은 14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건수가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26.5건으로 전국 평균(21.6건)보다 높고, 사상자도 적잖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17건, 2014년 20건, 2015년 23건, 2016년 25건, 2017년 9월



현재 21건 등 5년간 106건 발생했다. 5년간 어린이 사망자만 3명이나 발생했고, 10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493곳을 지정하고 이후 118곳을 확대해 현재 611곳까지 늘었다. 유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별, 지역별, 운행차량별 특성을 분석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정보문화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중단 파행

자료부실·무성의 이유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광주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도중에 중단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4일 오후 광주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자료부실'과 '피감기관 무성의' 등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별도 상임위를 열어 이를 대처하기로 했다.

감사에서는 진흥원의 현황보고 자료 부실 제출, 무성의 작성 등에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결국 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중지했다.

교문위는 긴급감담회를 열고 오는 20차례의 전체 회의와 99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217건의 정책제안과 자문을 했으며, 이 중 162건은 도정에 반영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 회기 중 14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돼 있어 지난 2월 시작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 감사일 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조례 규정대로라면 일종의 '범의 감사'를 하게 되는 셈이다.

김옥주 교문위원장은 "15일 감사 속개는 너무 촉박해 20일로 일정을 늦춘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더라도 별도 상임위를 열어 기록을 남기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감사 기간을 넘겨 감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경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연기는 불가하며 상임위 차원의 별도 회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후원 | KORAIL 광주본부 SR
| 본 상품은 우수해양관광상품공모전에 선정된 상품입니다 |

전복과 함께하는 **땅끝마을·슬로시티 청산도여행** 1박2일

1일차

- ▶ 용산역(07:20) / 광명역(07:40) 도착 후 KTX 탑승
- ▶ 수서역(07:10) / 지제역(07:30) 집결 후 SRT 탑승
- ▶ 용산역(07:49) / 광명역(08:04) / 수서역(07:40) / 지제역(07:59) 출발
- ▶ **광주송정역 도착 후 출발(09:37)**
- ▶ 송호마을 도착 후 중식(12:00)
- ▶ 송호리해수욕장, 전복 양식장 견학(12:40)
- ▶ 송호마을 출발(15:00)
- ▶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위치한 해남 땅끝마을 관광
- ▶ 땅끝 모노레일이용시 개별부담입니다.
- ▶ 땅끝마을 출발(16:30)
- ▶ 숙소 도착 후 배정 및 자유석식(17:00)

*교통편: KTX or SRT 전용차 / 중식만 제공

2일차

- ▶ 조식 후 출발(07: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08:30)
- ▶ 완도여객선터미널 출발(09:00)
- ▶ 슬로시티 청산도 도착 후 관광-서편제, 봄의왈츠 세트장(09:40)
- ▶ 청산도 자유중식 후 출발(13: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13:40)
- ▶ 다산초당·백련사 도착 후 관광(15:00)
- ▶ 백련사 출발(17:00)
- ▶ 광주송정역광장 도착 후 송정 1913시장 관광 및 자유 석식(18:00)
- ▶ 광주송정역(KTX-19:39 or SRT-19:39) 출발(19:24)
- ▶ 광명역(20:54) / 용산역(21:10) / 지제역(21:05) / 수서역(21:32) 도착

*교통편: KTX or SRT 전용차 / 조식만 제공

출발역	성인			소인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용산역 - 수서역	250,000	245,000	240,000	190,000
광명역 - 지제역	245,000	240,000	235,000	185,000
광주송정역	160,000	155,000	150,000	140,000

참고사항

- 최소출발인원: 10명 이상 출발 조건
- 포함사항: 왕복 KTX 열차비, 차량비, 숙박비, 1일째 중식 2일째 조식, 양식장 현장견학비
- 불포함사항: 여행자보험, 일정표상 식사3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여행사에서는 여행자보험에 대해 가입할 수 없이 개인이 직접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연계버스는 출발인원에 따라서 차츰이 변경됩니다. (승합차/중형차/대형차)
- 상품별 최소 출발인원이 부족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출발 4일전에 연락드립니다.
- 취소 환불규정: 여행출발 3일전 취소시 80% 환불, 2일전 취소시 50% 환불, 1일~당일 환불불가
- 홈페이지 접수: www.daewontour.com(대원여행사)

계좌번호: **농협 301-526-7000-191** (주)대원여행사

해외여행 · 국내여행 · 할인항공권 · KTX기차표 · 허니문 · 단체여행 · 골프투어 · 기차여행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 (현대자동차빌딩 옆) | 메일: daewonkr@hanmail.net

Tel. 062)526-7000 H. 010-9715-1000 www.daewontour.com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이며 현지사정(기상변화) 및 열차 사정에 의해 시간 및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